

[부활, 우리의 소망 4] - 최후의 만찬

김완일 목사 / 1996

최후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땅 위로 오신 분이다. 인간의 지평 속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요 1 : 14). 그 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다 (요 1 : 1).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리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은바 된 것이 없다 (요 1 : 3). 그 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여호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엄청난 자기 비하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감당하셨다. 배고프기도 하셨다. 피곤도 하셨다. 분노를 느끼기도 하셨다. 슬픔을 가늠치 못하여 울기도 하셨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다. 팔레스틴의 건조하고 먼지 많은 골목들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셨다. 긴 가운을 걸치고 샌들을 신고 먼지길을 다니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해주신 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배반과 질시를 한몸에 받았다.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름을 얻은 바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바로 그 인간들에 의해서. 배반의 고통은 당해 볼 자만이 아는 법이다. 배반처럼 처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다. 질시처럼 인간을 수모의 구렁텅이로 쑥셔넣는 것은 없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세련된 인간들은 알길이 없을 것이다. 그 분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많으나 배반과 질시는 본능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환란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는 하겠으나 부담이 없어야 좋고, 따르기는 하겠으나 고난은 더욱 없어야 한다. 이것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속셈이다.

살아서 죽음을 알리는 운명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

그는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 만찬을 베풀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는 시간이다. 사랑했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죽음을 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 이것이 스승으로서 어찌 해야할 일인가 ! 이별의 순간도 아픈데 죽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죽음을 알리는 운명의 주인공이다. 식탁 위에 음식이 식어간다. 세상 말로 무슨 입맛이 있었을까 ? 죽음을 알리는 무대에 불과한 식탁이다. 근데 앉아 듣게 하자니 당신의 마음이 더욱 고통스럽다. 먹을 것이라도 차려놓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보자고 생각했을 것이다. 혼자서 이 식탁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 앞뒤를 모르고 능력과 기적 앞에 자기가 스승인 것처럼 착각하고 따라온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

식탁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날도 지치고 피곤한 하루였다. 여느때처럼 빨리 쉬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미리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평소와는 다르게 만찬을 준비해 두셨다. 뭔가 분위기가 숙연해 보인다. 스승의 굳게 다문 입가에는 절제된 언어의 모습이 분명하다. 제자들을 보며 웃어 보이는 미소가 평소보다 자연스럽게 지 않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피를 토하는 아픔을 감추고 있다. 한명 한명의 제자들에게 깊고 사랑스런 눈빛을 주고 있다. 마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자식처럼 말이다. 서로 마주 대하기가 고통스럽다 못해 차라리 피해버리고 싶다. 만남이 고통이요 함께 있음이 아픔으로 느껴지는 시간이다.

자기 유익에 남다른 감각을 가진 자가. .

예수 그리스도 !

그 곁에는 유다가 있었다. 언제나 계산에 밝았고 자시 유익에 남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3년을 함께 따라 다니며 돈계를 담당했다.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서 자기 주머니를 만지작 거렸고, 병든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 타산을 따져 보았던 사람이다. 다른 제자들과 군중들을 보기 좋게 따돌렸던 사람이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그를 의심할 수 없었고 상식적으로 그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도적이었다. 선교와 도적이 함께 있었고, 복음전파와 돈을 빼돌림이 동시에 행해졌다. 예수를 이용하여 착복을 했던 사람이다. 소름끼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유다도 제자들과 함께 존경받았을 것이고 수고하는 척하는 모습 속에서 위로받았을 것이다. 자신의 실상을 숨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중적인 인격을 가리기 위해 얼마나 사랑

과 은혜를 힘주어 말했을까? 자신의 비리를 눈치챈 다른 제자들이 스승결을 떠나기를 속으로 얼마나 원했을까?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된다. 바른 지혜는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흠친 것을 토해내는 행위이다.

무서운 침묵과 절제된 언어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마 26 : 26 ~ 28) 고 말씀하신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다. 짐승을 잡아 잔치를 하듯이 살과 피를 나눠주신다고 한다. 스승을 잡아 먹으라는 말씀인가? 참으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다. 떡과 잔을 받기에는 도무지 자신감이 없다. 무슨 자격이 있다고 스승의 살과 피를 날름 날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 영혼이 살 수 있다.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세운 제도나 전통이 아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 분 자신이 직접 세우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인에게 방법이 아니라 축복이며, 제도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이다.

최후의 만찬! 그날 그 사건이 있었기에 인간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날의 사건을 마음에 가져보자! 떡과 잔을 건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자! 무서운 침묵과 절제된 언어의 고백을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분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돌아가자!

/ 김완일 목사

* 출처 - 은누리신문